

2024년 5월 12일 “(가정 2) 부모와 자녀”(엡 6:1-4)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키가 됩니다.

[1] 자녀와 양육

가정의 여정에서 자녀들은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든 친절함이, 어떤 사람에게든 온유함이, 어떤 사람에게든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 등 각사람마다 필요한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사랑의 모든 요소들이 실천되도록 요구됩니다.

자녀에 대하여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절제하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함께 웃고 울어주고, 품어주는 등 인격체를 성장하게 하는 모든 사랑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양육 하다가 성품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테크닉이 아닌 부모의 삶 자체를 쏟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은 큰 유익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랑의 보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줄이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견고 해져서 자존감 회복, 삶에 대한 긍정,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2] 부모 공경

양육은 끝이 있지만(독립할 때까지), 부모 공경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단계를 지나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도 공경심은 계속됩니다. 나를 양육해준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도 부모 공경을 잘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지만,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함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부모님의 양육의 자취가 기억 속에 남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도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참된 모습을 보일 때 비록 양육자로서는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구축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의 표현과 선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것은 내면에 매우 큰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서로 사랑한 부모를 공경하고 높여 드리게 됩니다. 경이롭게도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핵심은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엡 5: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므로 견고한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차원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내가 양육자라면 어떤 것이 장점이며 어떤 것이 단점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은 어떤 면이 좋았고 어떤 면이 싫었습니까?
2. 내가 양육자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그분들의 면모 중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